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음 12월 23일) 제19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7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군산~제주공항 노선 오전 증편 확정'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최정수 한국공항공사 군산 이사장 등 관련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예술촌 프로젝트 본격화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위한 주민 설명회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 교통 통제체계 의견 수렴

전주시는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7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서노송동 선미촌주변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체육성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바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총 74억원이 투입돼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경관정비, 도로정비(권삼득로, 물왕말2·3길), 커뮤니티공간 및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올해 추진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는 권삼득로의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교통 통제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과거 성매매업소로 가득했던 선미촌 구간 도로(길이 380m, 폭 15m)의 보행로를 확장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해 걸기 좋은 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곳을 지역예술가들과 주민공동체의 활동 공간 등으로 제공해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여행길로 만들 예정이다.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전주시의회와 경찰서, 교통·도시계획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도로공사 추진 시에는 전기·통신 지중화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아트팩토리와 아트레지던시 등 선미촌 내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공동체육성 사업에도 착수. 하반기에는 도로정비와 골목경관 정비,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를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이 본래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 인권 전문가, 예술가,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삶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군산~제주 왕복 하늘길 '활짝'

전북도와 제주도간 1일(하루) 왕복 가능한 하늘 길이 열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을 이용해 오전(10:55)에 제주로 출발해 일출을 마친 뒤 오후(4:25) 비행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 제주에서 최소 1박이 불가피했던 상황이 해결돼 전북과 제주간 이실질적으로 1일 교통 생활권으로 들어서는 의미가 있다.

또 군산-제주간 항공기가 증편돼 매일 왕복 3회 운항체계로 바뀐다. 군산공항 항공수요 확대 필요성에 따른 문제 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큰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항공수요 증가 전망치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 한국공항공사측은 이날 송하진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최정수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공항의 제

공항 노선 오전 증편 확정

새만금국제공항 신속추진 타당성 확보에 도움 될 듯

이스타항공 증편 항공기 3월 25일부터 매일 운항

주노선 오전 증편 확정과 관련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전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 한국공항공사측은 전북도청 4층 송하진도지사 접견실에서 언론 브리핑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스타항공 오전 증편 항공기는 오는 3월25일부터 189석 항공기(B737-800)로 매일 운항 된다.

메일 INDEX
3면 - '탈세' 부영 이종근 구속

이로써 2009년 2월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 취항을 시작한 이후 1일 2회 왕복운항 하던 비행편이 3회 왕복운항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군산공항은 연간이용객이 23만명, 탑승률 88%로 항공수요 확대 등이 한계에 이르러 이용객들은 '오전 출발 늦은 오후 도착' 항공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증편운항을 계기로 항공편 부족으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전북도민들의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재정순실 보전 및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600만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원, 증편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4면 - 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첫 공판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속 확정

광주~대구고속도로(이하 광대고속도로) 대구방향 휴게소에 순창농특산물 직판장인 순창군행복장터가 올해 9월 문을 열어 순창군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광대고속로 광주방향에 순창군행복장터를 설치한데 이어 최근 대구방향 휴게소에도 순창군행복장터를 설치하기로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대구방향 휴게소의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한국도로공사의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LX공사 'The 좋은 일자리위원회' 출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The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7일 출범시켰다.

LX는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회 The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명식 사장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여성과 지역일자리, 노동 분야 전문가와 경영 및 행정학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LX의 일자리 창출관련 모든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해 신설한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 운영과 향후 5년간 1만 여개의 민간일자리 창출 로드맵 추진에 대한 점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박명식 사장은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다함께 열거하는 으뜸도시 전주

전주 으뜸상품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완주 으뜸상품권과 함께 행복한 '설날'

우리 이웃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주 으뜸상품권!

완주 으뜸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보 ' 으뜸상품권'으로 지난 2015년 상품권 제작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전주인주시민지부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을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완주 으뜸상품권이 우리 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5% off

완주군 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5%를 할인 판매

으뜸상품권 사용처 |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으뜸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으뜸상품권 구매처 | 군내 지역농협

문의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